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7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11일 2025년 4월 8일 화요일

광주 인술·구호로 미얀마 지진 상처 치유

지난달 28일 지진 규모 7.7에 달하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 만달레이 중심가. 이재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생존자 등을 수색하고 있다.

긴급 구호팀으로 미얀마 만달레이를 찾은 (사)아시아희망나무 서정성 이사장과 김용태 아시아희망나무 회원이 이재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다. 〈서정성 이사장 제공〉

아시아희망나무·광주시의사회 지진 피해 미얀마에서 나눔 활동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의사·간호사 등 구호팀 10명 만달레이서

이재민 1200여명에 의약품·구호품 전달하고 치료…식사도 제공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 지진 규모 7.7에 달하는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에서 나눔과 연대의 도시 광주가 인도주의적 실천에 나섰다.

(사)아시아희망나무(이사장 서정성)와 광주시의사회(회장 최정섭) 긴급 구호팀이 지난 5일 찾은 미얀마 만달레이에는 내전과 지진 피해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었다.

만달레이 지역은 이번 지진의 진앙지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 중 한 곳이다. 대부분의 주택은 폭격을 맞은 듯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가재도구 등 생필품도 가지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은 모두 완파됐다.

특히 4년째 내전에 시달리면서 지진 피해 복구도 늦어지고 있는 데다, 의약품과 긴급 구호품 등의 부족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40도가 넘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재민들은 설사와 피부병 등의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재민들은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인근에 텐트와 천막 등을 치고 1000여명씩 모여서 고통의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군부 독재와 내전으로 인해 정보 공유도 어렵고 구호단체와 물품도 다른 재해 현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만달레이 주민들에게 광주 구호팀은 '단비'와 같았다.

서 이사장과 (사)아시아희망나무 회원으로 구성된 광주 긴급구호팀은 지난 4일 항공편으로 한국을 출발해 미얀마 수도 양곤에 도착한 뒤 차량을 타고 12시간 이동해 만달레이에 도착했다.

미얀마 의사회와 만달레이 의사회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 의사, 간호사, 통역 등 10명으로 구호팀을 구성해 이재민들에게 의료품과 구호품을 전달했고, 지난 7일에는 1200여명의 이재민들에게 하루 두 끼 식사도 제공했다.

서 이사장은 "40도가 넘는 기온과 높은 습도로 이재민들의 위생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면서 "특히 내전으로 인해 구호 물품 등의 공급 등이 어려워 이재민들의 고통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서 이사장의 출국 소식을 들은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구호팀에 긴급 구호자금으로 1000만원을, (사)아시아희망나무 이사진들은 성금을 보태면서 이번 긴급 구호팀은 3000만원 상당의 구호 자금으로 부족한 의약품과 구호품 등을 현지에서 구입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서 이사장은 "피해 복구도 많이 더딜 것 같고, 현지에 의약품과 구호품 등이 많이 부족해 오는 10일께 다시 한번 광주 구호팀을 구성해 만달레이 지역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이재명 대표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

우원식 개헌 제안…국힘은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지도부가 '개헌·대선 동시 투표'에 동의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관련 기사 3면〉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의미를 부여하는 등 개헌논의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우 의장 주도 개헌 논의가 본격 점화하는데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 농장주들 구제역 예방 접종 부실 ▶6면
우리동네 미술관 - 무안 오승우 미술관 ▶18면
타이거즈, 롯데·SSG와 벼랑끝 승부 ▶22면

광주시·대학, 지역 미래 청사진 라이즈 사업 '스타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7개 대학 선정 749억 지원

광주시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관련기사 3면〉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17개 대학이 광주 라이즈 사업 대상에 선정돼 총 749억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학들은 총사업비에서 광주시가 배정한 금액을 연차별로 받는다.

라이즈 사업은 기존 교육부에서 배정하던 대학별 지원금을 광역지자체에 배분해 자치단체와 대학이 지역 맞춤형 혁신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광주시는 총 4개 프로젝트에 14개 단위과제에 대해 광주지역 17개 대학을 선정했다.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 등을 비롯해 대학들이 컨소시엄(공모를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꾸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광주시는 대학별로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10일)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5월 초 광주라이즈사업 전담기관인 광주라이즈센터와 17개 대학이 협약을 체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광주시는 대학 서열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학별 구체적 지원금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도 라이즈 사업비(3031억원)의 집행을 위해 전남지역 17개 대학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았다. 도는 라이즈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선정 대학을 밝표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